

하늘 사랑

April 2020
vol. 466

4

cover story
봄의 전령사, 매화
2018 기상기후사진전 <계절사진> 목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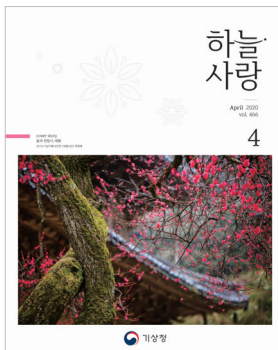
하늘 사랑

vol. 466

4

April 2020

주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 16길 61
전화 (02)2181-0354
팩스 (02)836-5472
E-mail kmanews@korea.kr
발행처 기상청
발행일자 2020년 4월 5일
발간등록번호 11-1360000-000079-06
발행인 김종석
편집장 이은정
편집기획 오철규 남궁지연 조아라
디자인/인쇄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cover story

봄의 전령사, 매화

온갖 어려움을 뚫고 봄이 왔습니다.
어서 우리를 일상에도
봄이 왔으면 합니다.

Contents



Special Theme

특 집

- 02 날씨의 기억, 국민의 기록!
'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 작품

포커스 뉴스

- 06 옛 과학기술의 꽃, 공주 충청감영 축우기
국보가 되다!
- 08 새롭게 전달되는 지진해일정보,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기상청에서 발행한 「하늘사랑」 저작물은 '공공누리'의 출처표시·상업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상업적인 목적이나 변형하여 이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또한 사진, 일러스트, 만화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공공누리'는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입니다. www.kogll.or.kr



Weather Tal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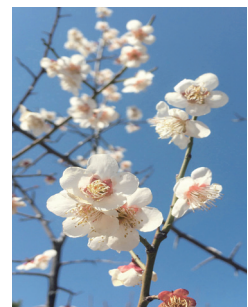
- 10 그림에도 좋은 날
- 12 일상 회복하는 날이 오길
- 14 기후는 먹거리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 16 문학 작품 속, 봄봄봄!

Theme Story

- 18 아이와 함께하는 '지구의 날'
- 20 기상레이더와 함께하는 네 번째 데이트!
- 22 아빠의 고민

Report

- 24 Photo briefing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 26 오늘, 당신의 날씨
- 28 Platform



날씨의 기억, 국민의 기록!

‘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 작품



사진 속 기상현상

용오름 격심한 소용돌이가 기둥 모양(또는 깔때기 모양)의 구름 밑에서 지면이나 해면까지 닿아있는 현상

대상

쌍용오름
김택수

촬영장소: 울산시 동구 방어진

대상을 차지한 김택수씨의 쌍용오름은 바다 위 거대한 ‘용오름’ 현상을 멋지게 포착했다. 기상학적으로도 진귀한 현상인 ‘용오름’을 노을과 함께 어우러진 멋진 사진으로 탄생시켰다.

기상청은 세계기상의 날(매년 3월 23일)을 맞이하여,
 ‘날씨의 기억, 국민의 기록!’이라는 주제로 기상기후사진을 공모하였다.
 공모 결과 △일반 사진 3,096건 △타임랩스 64건 등 △총 3,160점의 작품이 접수되었으며,
 최종 38점의 작품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신비하고 아름다운 우리 주변의 날씨를 담아낸 이번 수상작들을 만나보자.



사진 속 기상현상

안개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여 지표 가까이에서 작은 물방울 또는 얼음알갱이 형태로 떠 있는 현상

금상

안개도시
 방춘성
 촬영장소: 경기도 고양시 북한산

안개 속 한편의 그림 같은 이 작품은
 이른 새벽 빌딩숲 찬란한 조명들이
 구름을 뚫고 비치는 신비한 모습을 담았다.

사진 속 기상현상

해무 바다 위의 안개를 총칭한다. 해수면 위에 매우 작은 물방울들이 부유해 있고 시정거리가 1km 이내일 경우 해무라고 한다.



이진

구름모자 쓴 독도

우태하

촬영장소: 경북 울릉군 독도

아름다운 우리나라 섬 독도에 구름이 두 섬에 걸쳐 있듯이 신기하게 펼쳐져 있다. 작가는 이 모습을 보고 ‘구름모자 쓴 독도’라고 위트 있게 제목을 붙였다.

동상

눈 내리는 날의 외출

김호

촬영장소: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서울에 모처럼 함박눈이 내리던 날,
외출한 할머니의 일상을 현실적이면서도 그림같이 담아냈다.

사진 속 기상현상

태풍 일반적으로 중심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인, 폭풍우를 동반하는 열대저기압

동상

태풍이 지나간 해변

박창완

촬영장소: 부산시 수영구 광안리



2019년 9월, 태풍 ‘링링’이 지나간 광안리 해수욕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담아냈다.
태풍은 그동안 바닷속에 쌓여있던 쓰레기들을 해변에 모두 토해냈고,
이 현장의 생생한 모습은 우리에게 경각심을 갖게 한다.



이처럼 다양하고 아름다운 기상현상을 담은 ‘제37회 기상기후사진 공모전’ 수상 작품은 4월 20일~26일까지 서울역에서 전시될 예정이며, 5월 11일~17일까지는 SRT 수서역에서 만남을 이어갈 계획이다. ※ 전시회는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옛 과학 기술의 꽃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국보가 되었다!

기상청이 소유한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국보 제329호)',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국보 제330호)'를 비롯한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국보 제331호, 국립고궁박물관)'가 드디어 국보로 지정되었다. 이 3점의 '국보'는 1971년에 측우기를 시작으로, 1985년에 측우대가 보물로 지정되었고, 50년 만인 2020년 2월에 국보로 격상되면서 그 가치를 새롭게 인정받았다.



국보 제329호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

국가기후데이터센터

혁신적인 사고의 전환인 측우기 발명

세종(세종 23년, 1441년) 대에 발명한 '측우기'는 세계 최초의 정량적 강우량 측정으로 사고의 전환을 이룬, 기상학 분야의 혁신적인 역사적 사건이다. 당시 세계 어느 곳에서도 내린 비의 양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기록은 없었다. 유럽은 측우기보다 무려 198년이 지난 1639년 이탈리아의 카스텔리(Castelli)에 의해 처음으로 강우량 측정이 언급되었으나 실제로 제작되지는 못했다. 반면, 조선 시대에서는 측우기로 인해 강우량 측정이 가능해지자 전국에 관측망을 구성하여 강우량 측정의 국가적 제도화를 이루었고, 더 나아가 강우량 측정결과를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되었다.

측우기의 역사

안타깝게도 현재 세종 대의 측우기는 현존하지 않는다. 1837년에 제작된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가 유일하게 남아있으며, 제작 시기와 크기 등은 바깥 면에 새겨진 명문(銘文)을 통해 확인된다. 이는 측우제도(측우기를 이용한 우량관측)가 19세기까지 계승되어 원칙에 맞게 꾸준히 유지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의 역사적 가치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 01. 대구에 있는 경상감영의 선화당 앞뜰 (1905년 5월)
- 02. 1930년대 인천의 총독부관측소 신관 앞에 있는 측우기와 측우대

세종 대 확립된 측우제도는 임진왜란 등을 거치며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다가 1770년(영조 46년) 다시 부활했다. 영조는 세종 대의 제도에 따라 측우기를 제작하여 팔도 감영(관찰사)에 보냈으며, 측우대는 세종 대 척도를 고증하여 만들었다. 영조 대에 새롭게 확립된 측우대 제작을 증명해 주는 유물이 국보 제330호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다.

국보로 지정되기까지의 여정

기상청은 세계 최초 강우량 측정기구인 측우기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다방면에서 힘을 모았다. 측우기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학술회의 등을 거쳐 2017년 국보승격 추진계획을 수립했으며, 국보승격을 요청했다. 국보 추진은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문가 현장조사, 자료검증, 명칭변경 등 다각적으로 검토하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 드디어 올해 2월 국보로 지정될 수 있었다.

중국의 왜곡된 역사 의식을 바로 잡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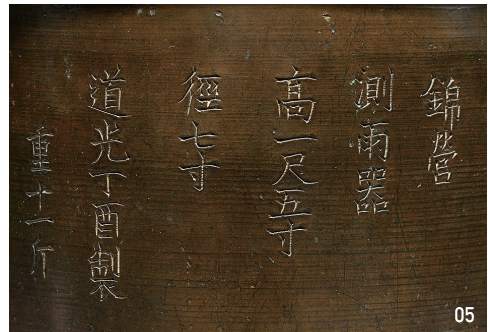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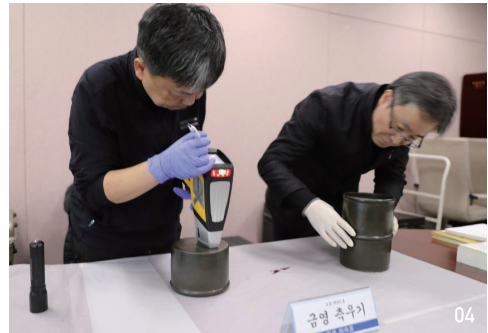
강우량 측정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이후 19세기까지 줄곧 이어졌다는 사실은 <조선왕조실록>에 분명하게 적혀 있는 명백한 사실이다. 기록뿐 아니라 현존하는 측우기와 측우대가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과학사 학자들은 측우기와 측우대에 새겨진 연호 때문에 중국 황제가 만들어 조선에 보내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으로 우리나라의 고대사가 중국 고대사의 지역사로 편입되고 있다는 사실 못지않게, 측우기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기상박물관에서 국보인 측우기와 측우대 전시

이번에 국보로 지정된 ‘공주 충청감영 측우기’를 비롯해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와 ‘창덕궁 이문원 측우대’는 제작 시기와 연원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농업을 위한 과학적 발명과 그 구체적인 실행을 증명해 주는 유물이다. 이는 인류문화사의 관점에서도 큰 가치가 있어 충분히 국보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았다.

기상청은 기상박물관 개관(10월 예정)에 맞춰 측우기와 측우대를 국민에게 선보여 더 많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더 나아가 우리 조상들의 훌륭한 기상과학문화와 그 우수성 및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릴 것이다.



03. 서울시 국보승격 심의 모습

04. 문화재청 심의 모습

05. 측우기 중단 명문

국보 제330호

대구 경상감영 측우대(전면)



새롭게 전달되는 지진해일정보, 국민의 안전을 지킵니다

지진화산국

갑작스러운 탁자의 진동으로 머그잔 안에 커피가 넘쳐 쏟아졌다. 탁자의 진동을 먼저 알고 대응한다면, 뜨거운 커피가 넘쳐 쏟아지기 전에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지진해일은 탁자의 진동과 머그잔 안의 커피와 같다. 해수를 담고 있는 지각에 지진, 화산폭발 등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바닷물도 곧바로 움직여 가파르게 출렁이게 되는 것이다. 기상청은 한반도에 발생하는 지진해일 상황변화에 대한 정보전달을 위해 올해 4월부터 ‘지진해일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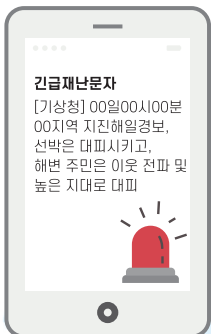
지진해일정보

- ① 지진해일특보 기준 미달이나 우리나라에 영향이 예상될 경우
- ② 지진해일특보 발표 이후, 지진해일 예측정보, 관측자료 등 추가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지진해일주의보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0.5m 이상, 1.0m 미만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지진해일경보

규모 6.0 이상의
해저지진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해안가에 지진해일
높이 1.0m 이상의
지진해일 내습이 예상될 때

지진해일이란?

지진해일은 해수를 담고 있는 지각에 지진, 화산폭발 등 급격한 변화가 생기면 바닷물도 곧바로 움직이면서 발생하게 된다. 주로 해저지진으로 발생하며, 바닷물은 해저면의 변형을 따라 가파르게 출렁이고, 이후 긴 주기의 파동은 사방으로 퍼져간다. 결국 해안가에 도달했을 때 해안의 형태와 만조, 월파 등과 겹쳐 피해를 일으킨다.

지진해일은 과거 우리나라에도 있었다

과거 1993년 7월 12일 일본 홋카이도 남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지진으로 우리나라 울릉도, 묵호, 속초, 포항에 지진해일이 관측되었으며, 당시 30여 척의 선박 피해와 3,200여 개의 어망과 어구 손실이 발생했다.

일본 서쪽 해역에서 1993년과 비슷한 지진이 발생하면 울릉도에는 약 60~80분 후, 동해안에는 90~100분 후에 약 0.5~3m 높이의 지진해일이 발생할 수 있다.

지진해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나요?

기상청은 우리나라 해안에 도달되는 지진해일의 예상 높이에 따라 지진해일경보, 지진해일주의보, 지진해일정보를 발표한다.

지진해일특보는 지진발생 현황, 특보 구역의 예상 최초도달시간, 예상 최대높이와 당부사항을 포함하며, 지진해일정보는 지진정보, 주요 지점의 예상 최초도달 시간, 예상 최대높이, 조석 정보, 지진해일 관측정보, 당부사항으로 구성된다.


지진해일특보는 특보구역의 시·군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께 긴급재난문자(CBS*)가 전송되지만, 지진해일정보는 연안 방재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으로 재난관리기관과 담당자에게만 일반문자서비스(SMS)가 제공된다.

*CBS : Cell Broadcasting Service

지진해일이 해안가에 도달하게 되면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높은 파도가 계속 밀려오며, 수 시간 동안 해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진해일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안전한 대피 장소에 머무는 것이 중요하다.

지진해일 발생 시 행동요령

- 해안에서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지진해일 긴급 대피 장소나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 지진해일이 오기 전 해안의 바닷물이 갑자기 빠져나가거나, 기차와 같은 큰 소리를 내면서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높은 곳으로 대피합니다.



지진해일 내습 시 선박 위에 있다면

- 항만, 포구 등에 정박해 있거나, 해안가에서 조업 중인 선박은 지진해일 발생 여부를 인지한 후, 시간적 여유가 있다면 선박을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이동시킵니다.
- 지진해일이 내습하면 항만 등에서 그 파고는 거대해지고 유속이 급격하게 증가하므로 선박의 안전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 선박에 대한 조치가 끝난 후에 자신이 육지에 있다면 동료들과 함께 신속히 고지대로 대피합니다.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자연재난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지진해일은 신속한 정보 전달과 재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기상청은 국민에게 지진해일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진해일특보 및 지진해일정보 예시

지진해일경보·주의보

2020년 00월 00일 15시 10분 발표

1. 지진해일특보 및 구역
 - 지진해일경보 : 강원남부해안
 - 지진해일주의보 : 강원남부해안, 강원중부해안, 경북남부해안
(특보구역) [지진발생위치]

2. 지진발생 현황
 - 발생시각 : 2020년 00월 00일 00시 00분 00초
 - 발생위치 : 일본 이마기(태평양) 이마기타 서북서쪽 83km 해역
(북위 38.60°, 동경 139.50°)
 - 발생깊야 : 10 km
 - 규모 : 7.5

3. 구역별 지진해일 예상 최초도달시간 및 최대높이

구역	예상 최초도달시간	예상 최대높이
강원남부해안	2020-00-00 17:28	0.5~2m
강원중부해안	2020-00-00 17:20	0.5~1m
강원남부해안	2020-00-00 17:25	0.5~1m
경북남부해안	2020-00-00 17:30	0.5~1m
4. 당부사항
 - 도사 해안 저지대는 지진해일로 인한 침수가 예상됩니다. 높은 곳으로 대피 바랍니다.
 - 지진해일 예상높이는 조석을 포함하지 않으며, 최초도달 이후 점차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 바랍니다.
 - 주요시정별 지진해일 예측정보, 조석정보는 향후 발표되는 정보를 확인 바랍니다.

※ TV 방송사는 위의 내원으로 재방송 및 재방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진해일정보(1보)

2020년 00월 00일 15시 30분 발표

2020년 00월 00일 15시 10분 발표된 지진해일경보 주의보와 관련한 지진해일정보(1보)입니다.

1. 지진해일특보 및 구역
 - 지진해일경보 : 강원남부해안
 - 지진해일주의보 : 강원남부해안, 강원중부해안, 경북남부해안
2. 지진해일 예상 최초도달시간 및 최대높이 (0.2m 이상 지점)

주요지점	예상 최초도달시간	예상 최대높이
고성	2020-00-00 17:14	1.0m
속초	2020-00-00 17:15	1.0m
목포	2020-00-00 17:17	0.9m
포항	2020-00-00 17:53	0.7m
김포	2020-00-00 17:57	0.2m
3. 조석정보

지역명	관측소	시간	높이	관측소	시간	높이	※ 출처 : 국민해양조사원	
							시간	높이
속초 (고조)	(고조)	2020-00-00 17:14	20cm	(저조)	2020-00-00 23:20	-0cm		
		2020-00-00 17:20	24cm	(저조)	2020-00-00 23:25	-10cm		
포항 (고조)	(고조)	2020-00-00 17:40	41cm	(저조)	2020-00-00 23:50	4cm		
4. 당부사항
 - 지진해일의 높이는 조석을 포함하지 않으며, 최초도달 이후 점차 높아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랍니다.
 - 지진해일특보가 해제되기 전까지 향후 발표되는 정보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림에도 좋은 날

오 은 시인

“날 참 좋다.”

산책을 하는데, 뒤에서 연인이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상대가 “정말!”이라고 화답하는데,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날이 정말 좋았다. 어수선한 분위기는 좀체 가라앉을 것 같지 않지만, 봄날은 올해도 순리대로 찾아온 것이다. 오늘 당장 힘든 일이 있어도 아침에는 어김없이 해가 뜬다. 환경만큼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다하는 것은 없다.

날이 좋다는 건 기본적으로 ‘날씨가 좋다’는 것이다. 그날그날의 사정이 다 있을 테지만, 그래서 우리의 하루는 매일 비슷하면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날이 좋다고 말하는 것은 날씨가 지금의 내 상황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기분이 축 처져 있는데 날이 좋으면 우울감은 더욱 커질 수 있을 테지만, 좋은 날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좋은 날씨는 그 자체로 축복이 되기도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덕분에 사람들이 여럿 모이는 행사, 강연, 낭독회 등이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었다. 아쉬운 마음도 들고 당장 이번 달 생활비도 걱정이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집에만 있으면 마음 따라 몸도 처질까 싶어 산책하는 일을 빼먹지 않고 있다. 편한 신발을 신고 동네에 있는 근린공원을 몇 바퀴 도는 일, “바람이 아직 차네”, “나오니 이렇게나 좋은걸” 같은 혼잣말을 하며 오늘을 응시하는 일, 그리하여 사회적 거리는 생기더라도 스스로가 일상과 완벽히 멀어지지는 않는 일.

코로나19로 봄을 만끽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숨통을 틔우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떻게든 일상을 붙들려는 마음이, 내가 누리던 소소한 것들을 유지하겠다는 마음이 그들과 나를 공원으로 이끌었을 것이다. 재채기만 해도 사람들의 시선이 한곳으로 쏠리는 요즘, 좋은 날씨가 ‘좋은 날’로 연결되지 못하는 상황이 가슴 아프다. 한번 굳어버린 마음이 녹는 데에는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필요할까. 그때까지 봄날이 우리를 기다려줄까. 봄은 매년 짧아지는데, 미련을 가질 시간도 없이 한여름이 눈앞에 펼쳐지지는 않을까.



집에 와서 보선이 쓰고 그린 『나의 비거니즘 만화』(푸른숲, 2020)를 읽었다. 비건과 비거니즘에 대한 오해를 해소해주는 것은 물론, 그것을 심지어 명랑하고 유쾌하게 그려내는 책이었다. 무엇보다 ‘완벽한 실천’을 강요하지 않음으로써, 동물과 지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돌아보게 만드는 미덕이 있었다. 내가 가장 좋았던 부분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는 대목이었다. 공장식 축산이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는 이유가 된다는 것도, 내가 무심코 버린 쓰레기가 물고기의 배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도 ‘연결’이 지닌 무시무시함이다. 인간의 오만함이 생태계에 개입하면 작용과 반작용이 평등하게 일어날 수 없다.

책을 다 읽고 나니 문득 <앞으로>라는 동요가 떠올랐다. “지구는 둥그니까 자꾸 걸어 나가면 온 세상 어린 이들 다 만나고 오겠네.”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듯 사람과 사람도, 사람과 환경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리지 말자”라는 ‘하지 않음’과 “웬만하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어”라는 ‘하겠음’이 둘 다 필요하다. 연결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돌아보는 일은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필요하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빙하는 녹고 있고 바닷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삶에 대한 위협, 일상에 대한 불안은 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날 참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여유만큼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늘을 올려다보면 놀랍지 않은가. 어쩔 저렇게 한결같은지, 동시에 어떻게 매일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지. 어쩌면 좋은 날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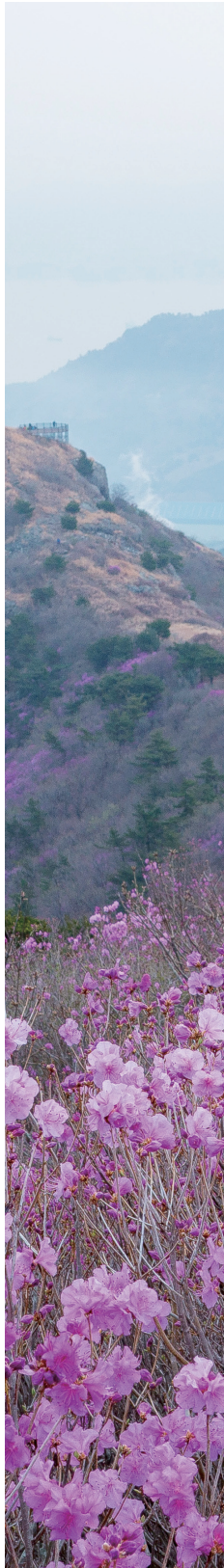
일상 회복하는 날이 오길

이 현 주 아시아경제 기자

봄이 오면 한결 가벼워진 옷차림으로 놀러 나갈 계획만 세우고 있었는데 모든 일정을 집에서만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전 봄꽃을 감상하는데 황사나 미세먼지가 그다지 큰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봄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선택 조건이던 마스크 착용은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가 되어 버렸죠. 팬데믹(Pandemic·감염병 세계적 대유행) 선언까지 이어지면서 여름휴가를 갈 수나 있을지 염려스럽습니다.

저는 환절기를 좋아합니다. 초봄의 날씨 변화를 느낄 때 제가 살아있다고 생각된다고나 할까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무렵이면 느껴지는 청명한 시원함도 물론 좋지만 봄이 올 때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나른한 온기도 좋아합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아지랑이 닳하며 약간의 게으름을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봄엔 나른함이 잘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봄이 왔다는 걸 실감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블루(Blue·우울감)’로 인한 감정적인 문제인가 싶기도 했지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느껴지는 기온의 차이가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는 크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겨울 평균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월과 2월의 평균기온은 각각 2.8도, 3.6도로 평년보다 3.8도, 2.5도 높았습니다. 한강은 13년 만에 얼지 않았죠. 이미 제주에는 진달래가 개화했으며, 평년보다 28일 빨랐습니다. 냉탕에 있어야 할 시기에 온탕에서 오래 있다 보니 중탕이 되어도 그 체감도가 덜했던 것 아닐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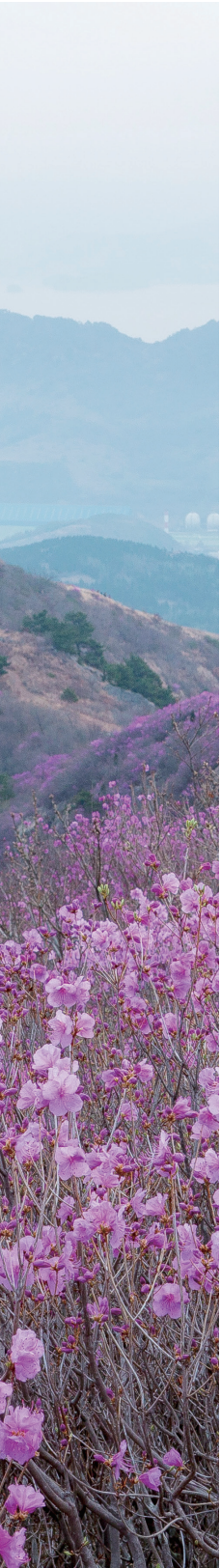
지금 쓰고 있는 이 글이 실릴 때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종식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는 일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종이라는 단어가 붙듯 새로운 종류의 위협은 또다시 인류에게 닥쳐오겠죠. 제가 선볼리 예측할 수 있는 위협 중 하나는 기상청을 출입하면서 심각성을 알게 된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어느 정도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죠. 지난해 겨울 북유럽과 러시아 서부를 중심으로 이상고온이 발생했으며, 특히 호주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강한 폭염과 지속된 산불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북미와 이탈리아에서는 이상저온이 발생했으며, 이집트에선 100년 만에 눈이 내렸습니다.

기후변화의 특징은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기후변화의 결과로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고 있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이상기후가 자주 발생하게 되죠. 5월에 30도가 웃도는 날씨가 나타나기도 하고 태풍 7개가 우리나라를 거쳐 가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름철이 되면 올 여름에도 최고기온이 얼마나 높을지, 태풍이 몇 개나 발생할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점은 기후변화 자체에 있기보다 이상기후가 발생했을 때 이를 대비할 수 없어 직격탄을 맞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는 노인, 어린이와 같이 외부 환경 변화에 대응이 어려운 약자들에게 치명적입니다. 이들에게 또 다른 재난이죠. 지난해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한랭질환자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층이었습니다. 굳이 데이터를 따져보지 않아도 태풍이 자주 오게 되면 영화 ‘기생충’에 나온 기택(송강호)네가 박사장(이선균)네 보다 더 큰 피해를 입지 않을까요. 기상청에서 시행 중인 영향예보를 더 촘촘하게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일상이 사라지면서 사소한 것들이 문득 소중한게 느껴집니다. 평일에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 삼삼오오 모여 점심을 먹고 마시던 커피 한 잔, 소소하게 나누던 아침 안부인사 마저도 그리웁니다. 이제는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는 그 날이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더불어 올해는 기상청 기사를 쓰는 일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통상의 날씨 예보를 제외하고 말이죠. 기사가 적다는 건 그만큼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큰 변화나 특이할 사항이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요.



기후는 먹거리 가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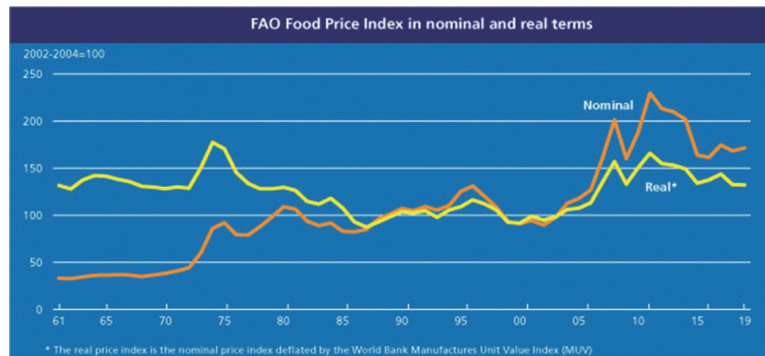
박근후 제12기 국민참여기자단

우리 일상생활에서 과자, 빵, 라면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식품들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도 구매가 망설여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매일 소비해야 하는 필수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먹거리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기후가 우리의 식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식량가격지수’란 무엇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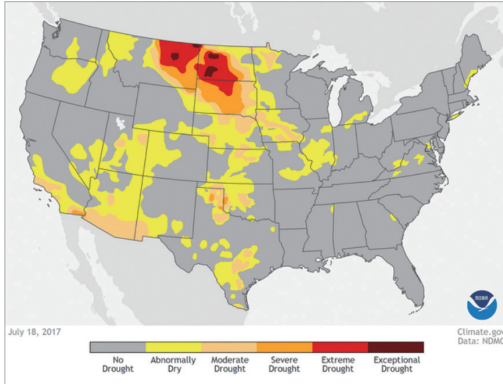
사람들은 매일 쌀밥, 과자, 빵, 라면 등 많은 종류의 식품을 먹습니다. 소비량이 많기에 이러한 식품들을 만들 때 수입 옥수수, 밀, 쌀 등의 곡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므로 세계를 오가는 수입 작물들은 국제가격이 존재하고 따라서 매순간 가격이 변동합니다. 그렇다면 가격 변화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유엔식량 농업기구(FAO)가 곡물, 유지류, 육류, 낙농품, 설탕 등 55개 주요 농산물의 국제 가격을 모니터링하여 지수로 만들어 발표하는 ‘세계식량가격지수(Food Price index)’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최근 2019년 12월 유엔식량농업기구의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014년 12월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계의 식량가격이 상승하는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세계적으로 식량가격이 상승하는 원인 중 하나로 ‘기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떠한 과거의 사례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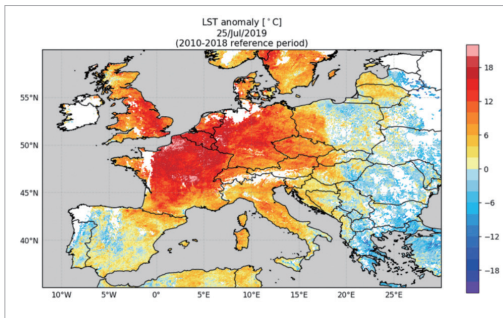


세계식량가격지수(2019. 12)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세계의 식량가격에 영향을 준 과거의 사례는?



출처 : NOAA(미국해양대기청) 산하 Climate Program Office



출처 : 유럽연합(EU) 산하 기후관찰 프로그램-코페르니쿠스

세계적으로 식량가격이 오르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2012년 미국 중부 대평원 가뭄

먼저 2012년에 발생했던 미국 중부 대평원 지방에서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 식량 가격이 국제적으로 상승한 경우입니다. 미국 중부 대평원 지방은 주로 로키산맥과 달아있어 해발고도가 낮고, 강수량이 많은 동쪽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미국 중부 대평원 가뭄은 동서지방 모두에서 발생해 피해 면적이 유례없이 넓었습니다. 또한, 2012년 5월 이후 비가 거의 오지 않았기 때문에 모래폭풍이 발생하여 농작물 피해가 컸습니다. 이로 인해 농작물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옥수수의 경우 생산량의 급격한 감소로 2012년 4월에 비해 2012년 7월의 옥수수 연평균 가격이 약 40% 정도 상승했고, 이와 동시에 대두의 가격도 약 30% 정도 상승했습니다.

2018~2019년 유럽 폭염

2018년과 2019년, 유럽은 폭염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유럽의 고온현상은 사하라 사막의 뜨거운 열기가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었기 때문입니다. 폭염으로 인해 농산물 작황이 악화되면서 유럽의 밀 생산량이 1년 전에 비해 10% 줄 것으로 예상되었고, 단백질이 줄어드는 등 밀의 품질도 나빠질 것이라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도 2018년, 호주는 강수량 부족으로 밀 생산량이 전년도에 비해 6% 줄어들었고, 오렌지의 주 생산국인 브라질의 강우와 미국의 폭염 발생으로 작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일본에서도 폭염으로 채소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유럽 지역에 사상 최고의 폭염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의 기온은 역대 최고인 46도까지 치솟았고, 독일,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도 기온이 40도를 넘는 등 유럽 전역에서 평년기온보다 10도 이상 높은 고온현상이 관측되었죠. 과거의 사례를 돌아본다면, 곡물 생산량의 감소와 가격상승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특히, 한국은 쌀과 서류를 제외한 거의 모든 작물의 수입 비중이 큼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량가격이 세계적으로 상승한다면 식품의 재료가 되는 식량가격이 오르고 자연스럽게 국내 식품의 가격도 상승하게 됩니다. 실제로 최근 원재료 부담이 증가된 기업들이 식품가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 가격이 한번 상승하면 설정된 가격 밑으로 하락하지 않는 하방경직성을 가지기 때문에 세계의 식량가격 상승은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소비자의 구매력 저하를 한국경제의 적신호와 연결해볼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가뭄, 산불 등이 발생하고 피해가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가 경각심을 갖지 않는다면, 자연재해가 더 빈번하고,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나비효과로 우리의 먹거리와 생활이 위협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개개인이 기후변화를 멈추게 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소중한 먹거리를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지 않을까요?

문학작품속 봄봄봄! !

편집팀

온갖 어려움을 뚫고 봄이 왔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로 그 어느때보다
안타까운 봄을 맞이 하고 있다.
그러나 너무 안타까워하지 말자.
꽃보다 더 싱그러운 봄의 이야기가
책 속에 펼쳐져 있을테니까.
문학 작품 속에서 펼쳐지는
싱그러운 봄 4편을 소개한다.



봄을 향한
아름다운
기다림

봄이다!

글 줄리 폴리아노
출판 열린책들(별천지)



줄리 폴리아노의 『봄이다!』는 봄을 기다리는 꼬마 주인공과 그의 동물 친구의 희망찬 기다림을 삽화와 함께 아름답게 표현한 그림책이다. 아직은 추운 애매한 계절, 꼬마 주인공은 봄을 직접 만들기로 한다. 씨앗을 뿌리고, 비를 기다리고, 싹이 움트길 기다리며 소년은 기다림에서도 봄을 찾는다. 소년이 지루해 이제 포기할 무렵, 어느새 고개를 드니 봄이 와있다는 따뜻한 이야기 속에 봄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이 녹아있다.



‘벚꽃새해’에서
다시금 찾아온 옛사랑

사월의 미, 칠월의 솔

글 김연수
출판 문학동네

벚꽃이 피기 시작한 날이 말하자면 ‘벚꽃새해’라는 낭만적이고도 유려한 김연수 작가의 표현. 그리고 아름다운 문장들을 따라가다 보면 봄과 옛사랑의 이야기가 어우러진다. 멈춰버린 시계를 찾으러 온 옛 연인. 그리고 시계만 작동이 멈춘 것이지 다시금 꽃도 피고 봄이 찾아왔다는 의미심장함 속에 봄의 시간을 느껴 볼 수 있을 것이다. 정말이지 봄의 새해는 벚꽃 피는 날이 아닐까.



수없이
지나쳤던
우리의 봄날



야생의 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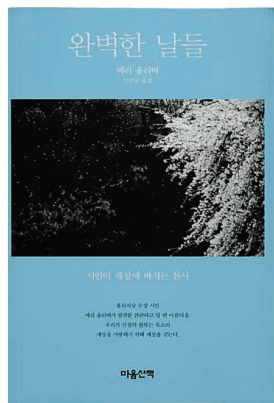
글 에마 미첼
출판 심심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박물학자가 쓴 야생의 기록이자, 자연으로 만든 우울증 처방전과 같은 책. 직접 그린 꽃과 들꽃, 나무, 동물들의 삽화와 사진, 그리고 진솔한 글귀들은 깊은 산속, 봄날의 풍경을 옮겨놓은 듯 아름답다. 꽃구경하기 힘든 요즘, 집콕으로 심신이 지쳐있는 요즘, 이 책을 통해 꽃구경을 떠나보자. 수없이 지나쳤지만 이름을 알지 못했던, 작은 들꽃과 들꽃들의 이름을 알아가는 재미와 함께, 우리가 잃어버린 봄에 싱그러운 색을 입혀줄 것이다.



고요하게
아름다운
봄날의
찬사

완벽한
날들



글 메리 올리버
출판 마음산책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인 풀리처상을 받은 시인, 메리 올리버의 산문집이다. 울림이 있는 단단한 문체와 함께 삶에 대한 깊은 성찰을 고요하게 보여준다. 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시인이 그리는 경이로운 세상 속 풍경은 햇살 좋은 찬란한 봄날을 천천히 떠올리게 한다. 봄 햇살 같은 메리 올리버의 문장들로 고요하게 봄을 떠올려 보는 건 어떨까?



아이와 함께하는 '지구의 날'

박 미 용 수도권기상청



'지구가 아파요.'
'지구를 지켜주세요.'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어요.'
지구를 지키기 위한 프로젝트!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다시 한 번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면 어떨까?

북극곰이 죽어요!

우리 집 첫째아들 나이는 올해 5살이다. 자기 전 아이를 씻겨주는데 아이가 말했다.

“엄마, 물을 계속 틀어 놓으면 북극곰이 죽어요.”

“우와! 우리 얘기 어떻게 알았어?”

“아빠가 알려줬어요.”

북극곰 이야기는 아빠가 아이를 씻기면서 물 장난치는 아이에게 해준 말이었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엄마에게 자랑하듯 말하는 아이를 보며, 새삼 놀라면서도 많은 것을 알려줘야 할 시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일회용품과 지구의 날

카페에서 일회용 컵 금지를 시작해 마트에서 비닐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자는 광고가 많아지고, 바다거북이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착각해 먹거나 빨대가 코에 박히는 사건 등의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이를 보면서 '아 나도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을 해야 겠구나.'하는 생각이 들곤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생각지도 못한 아이의 북극곰 공격이라니!

이를 계기로 아이와 함께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지구의 날’을 접하게 되었다. ‘지구의 날’은 매년 4월 22일로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날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지구의 날’을 전후한 일주일을 기후변화주간으로 정하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생활 실천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소등행사가 진행되는데, 이는 저녁 8시부터 10분간 불을 끄는 행사이다. ‘지구의 날’을 처음 들은 건 아니지만, 관심이 소등행사로 쏠려 그날만 참여했을 뿐 정작 그 이외의 실천은 편리함에 젖어 금방 사그라들었던 것 같다.

북극곰 살리기

얼마 전 우연히 「북극곰 살리기」 보드게임을 얻었다. 기후변화로 인해 빙하가 녹아 위험에 처한 북극곰을 구하는 게임이다. 아이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 집으로 가져왔지만, 막상 설명서를 보니 게임 대상이 초등학생 4~6명으로 적혀있었고, 보드판에는 산업화, 도시화 등 역시나 어려운 내용이 들어있었다. 하지만 게임 자체는 환경오염을 줄이는 일을 하면 빙하를 북극곰에게 주고, 전기를 낭비하거나 일회용품 사용하면 북극곰의 빙하를 뺏어오는 게임이라 어렵지는 않았다. 아이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극곰을 살리는 일이니까 말이다. 주사위 굴리는 것도 재미있어하고, 북극곰한테 빙하를 줘야 한다며 주사위의 수는 무시하고 게임 말을 자꾸 맘대로 옮긴다. 아이에게 북극곰은 큰 자극인 듯싶다.

나부터 실천

돌아오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아이와 함께 소중한 지구를 지키는 방법을 생각해 실천해 볼 생각이다. 우선 제일 먼저 흥미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소등행사가 제격일 듯하다. 저녁에 환한 불빛 속에 있다가 갑자기 불이 꺼지면 신기해하면서 왜 불을 끄는지 물어보며 아이의 호기심이 시작될 것이다. 아울러, 세수할 때 물 아껴 쓰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같이하기, 마트 갈 때 장바구니 가져가기를 함께 하면 좋은 교육이 되지 않을까? 단순한 일회성 자극이 아닌 습관을 들이게 하면 더욱 좋을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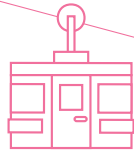
“마트 가자~”하면 “엄마, 장바구니 챙겨야지!” 하는 습관. 함께 하시겠습니까?



기상레이더와 함께하는 네 번째 데이트!

김 하 진 기상레이더센터

요즘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하는 습관이 생겼다. 바로 휴대폰으로 기상청 날씨누리에 접속하여 밤새 레이더 장비가 잘 가동되었는지, 예보지원에 차질이 없었는지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기상레이더센터로 발령을 받고부터 생긴 일종의 직업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레이더를 담당하는 부서에 네 번째 근무하고 있다.



기상레이더와의 첫 만남

1997년 10월, 나는 기상청 감사담당관실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하면서 관악산레이더로 발령이 났다. 이때가 기상레이더와의 첫 번째 만남이었다. 관악산레이더관측소는 우리나라 최초로 기상레이더가 설치된 곳으로, 관측의 특성상 관악산 정상(629m)에 위치해 있다. 전국의 레이더 관측소(11소) 중 유일하게 관악산에만 차량 도로가 없었기에 출퇴근 시에는 관악산 입구에서 탑승 시간이 약 15분 소요되는 케이블카를 이용해야만 했다. 이마저도 태풍으로 인한 호우 또는 강한 바람이 부는 날에는 안전상의 이유로 케이블카 운행이 중지되어 약 1시간 남짓 소요되는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상공에서 촬영한 관악산레이더 전경

기상레이더와의 두 번째 만남

2007년 7월, 기상청 여러 부서에서 근무하던 중 사무관 승진과 함께 광덕산레이더소장으로 발령이 났다. 광덕산은 강원도 화천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곳의 겨울은 특히나 춥다. 겨울철에 수십 cm나 쌓이는 새하얀 눈은 보기에도 멋있고 주변 산림·설경과 어우러져 매우 낭만적인 느낌을 갖게 한다. 그러나 이 낭만적인 느낌은 잠시, 해발 1,046m에 위치한 광덕산레이더는 겨울철만 되면 많은 적설과 얼어붙은 빙판으로 인해 출퇴근 시에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진다. 약 4Km의 거리를 스키장에서나 볼 수 있는 스노모빌(설상차, Snow Mobile)을 이용하여 전 직원이 출퇴근해야 했다.



관악산레이더 출퇴근 Cable Car



눈내린 광덕산레이더 전경



첨단 이중편파 기상레이더 교체사업

때로는 우리나라 직장인 중에 케이블카도 모자라 스노모빌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있을지 궁금하기도 했다. 산불이 종종 발생했던 2007년도에는 소방방재청, 산림청, 화천군청, 화천군 의용소방대, 27사단 수색대 병력 등 민·관·군 합동으로 약 300여 명이 광덕산 정상에서 소방훈련을 한 적이 있다. 관내 대형 119 소방차량이 광덕산 정상까지 출동하고 산림청 소방헬기까지 투입하는 등 실전을 방불케 하는 소방훈련을 광덕산레이더 주 관으로 대대적으로 기획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기상레이더와의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만남

2008년 10월, 다시 관악산레이더소장으로 발령이 났다. 이때는 소장으로써 관악산 소재 산정(山頂)기관인 KBS관악송신소와 더불어 SBS 및 교통방송 등의 관계자들과 남달랐던 유대관계가 기억에 남는다. 세월이 참 빠르다. 작년 7월부터는 서기관으로 승진하여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 운영과장으로 근무 중이며, 이로써 레이더와의 네 번째 만남이 이루어졌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강릉레이더를 마지막으로, 수년 전부터 전임자들이 추진하고 있었던 최첨단 기상레이더 도입 및 교체사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기상레이더 사용연수 연장 제도개선으로 국가 예산 절감에도 기여했고, 기상레이더 부품 국산화 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기상레이더센터 팀워크를 바탕으로 함께 한 동료들의 덕분이라 생각한다. 기상레이더와 인연이 많았던 나는 기상청을 사랑한다. 그리고 오늘도 출근하면서 힘차게 기상레이더센터 파이팅을 외쳐본다.



광덕산레이더 출퇴근시 Snow Mobile

아빠의 고민

진호성 대구지방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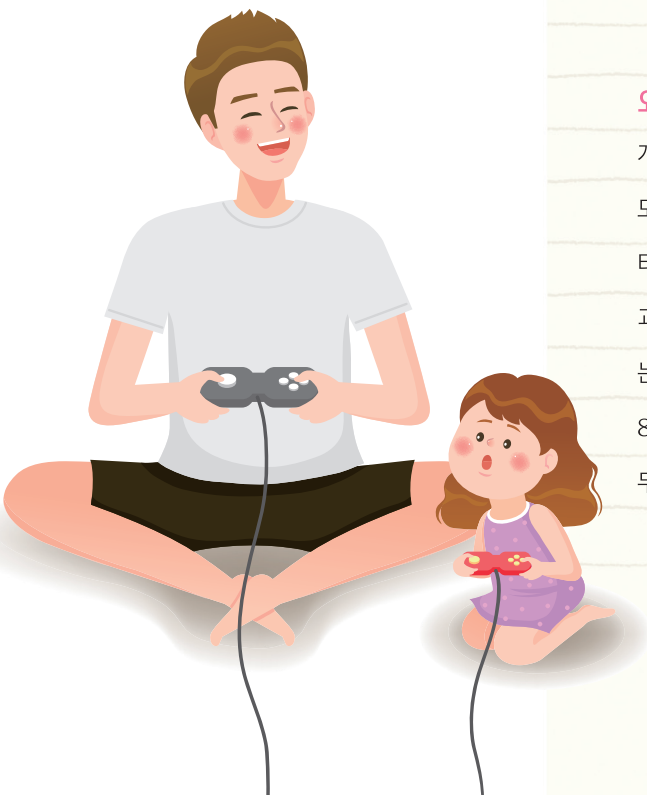
만물이 꿈틀대는 봄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비상사태 및 꽃샘추위 등으로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자 딸과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그저 스마트폰만 보는 딸아이가 안타까웠고, 이 시간을 그저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추억을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소중한 나의 딸

첫 딸이 태어나고 50일까지는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했다. 작게 태어난 아이라 조금만 힘을 주면 어딘가 부스러질 것 같았고, 혹시 목을 잘못 가누어 상처라도 입지 않을까 싶어, 손대기조차 힘들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안을 수 있겠지.' 했던 때가 얼마 전 같은데, 벌써 125cm, 30kg의 튼튼한 어린이가 되어 초등학교 입학 앞을 앞두고 있다. 어릴 때는 말을 하지 못해 대화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말을 할 수 있음에도 거리가 생겨버린 것 같다. 이렇다 사춘기를 거쳐 성인이 되어버리면, 언젠가 TV에서 봤던 어색한 대화를 주고받는 냉랭한 가정이 되어버리지 않을까 살짝 걱정되었다. 그래서 집에만 있는 딸아리와 할 수 있는 놀이를 찾아 친해지는 계기를 찾기로 했다. 최근 기름진 음식으로 통통히 살이 오른 딸과 운동을 시작했다. 키보드를 타고 공원 산책을 시도해봤지만, 요즘 외부활동을 하기는 쉽지 않았다.

외부활동이 어려운 요즘

개구리도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도 지나고, 매화가 만발하고 진달래도 피어나는 완연한 봄을 만끽하는 요즘이다. 그러나 종종 '꽃샘추위'가 나타나 외부활동을 움츠러들게 하고, 날이 따뜻한 날에는 미세먼지가 우리를 괴롭히는 날이 오기도 한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해 대구는 재난특별지역으로 선포될 만큼 외부활동이 더욱더 움츠러드는 시기다. 8살 아이에게 야외 활동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을 권하기는 너무 힘든 과제였다.



딸과 집안에서 함께하기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문화생활이나 키즈카페 등은 다중이용시설 사용이 자제되는 사항이라 집안에서 아이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놀이를 찾아야 했다. 하지만 이미 딸아이는 집안에서는 휴대전화를 손에서 놓지 않는 습관이 강하게 몸에 밴 상태였다. 재미난 놀이를 고심해낸 끝에 몇 년 전 유행했던 닌텐도 Wii를 통해 게임을 함께하기로 정했다. 나의 계획은 성공이었다.

이미 중고시장에서도 인기가 사라진 뒤늦은 게임이었지만, 딸아리와 함께 신나게 게임을 즐겼다. 둘이서 검투사 게임으로 진검승부를 펼치기도 하고, 한팀이 되어 카누 경기나 자전거 타기를 하면서 딸아이는 ‘까르르’ 웃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아빠 파이팅!’을 외치며 힘을 실어주는 아이를 보니, 그동안 놓쳐버린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행인 점은 그나마 지금이라도 이 놀이를 통해 딸아리와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게 되었다.

아이는 부모와의 상호 연계를 통하여 본인의 인성을 만들어 나간다고 한다. 내 생각과 행동이 딸아이의 10년, 20년 후의 삶의 모습을 만들어간다고 생각하니, 지금 아이와 함께 만들어 가는 시간을 더욱 신중하게 보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 훗날, 딸아리와 웃으며 떠올릴 추억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아이는 너무 빨리 커버리고,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비록 반강제적인 시간의 틈이 생겼지만, 더없이 좋은 기회로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나는 고민하고 있다.



사진으로 보는 기상청 소식

기상청 소속기관 코로나19 상황점검(3월 9일)



김종석 기상청장은 대구지방기상청을 비롯한 각 소속기관의 코로나19 상황을 점검했다.

겨울철 방재업무 종료식(3월 16일)



지난 겨울철 방재기상 대책기간동안 수행한 위험기상 방재 대응 사례 및 성과를 공유하고 방재기상업무 수행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과천 '131 기상콜센터' 현장 점검(3월 12일)



김종석 기상청장은 정부과천청사의 '131 기상콜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상담사들을 격려했다.

기상청 직원들, 취약계층에 보건용 마스크 500장 전달(3월 17일)



기상청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구매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자, 자발적으로 기부한 보건용 마스크 500장을 동작구청을 통해 전달했다.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기상청은 신속하고 정확하며 가치 있는 기상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일 새롭게 변모하는 기상청의 살아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전합니다.

코로나19 대응 점검을 위해 항공기상청 현장 방문(3월 20일)



김종석 기상청장은 항공기상청을 방문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항공기상청 현장 대응 현황을 보고 받고 인천공항 기상레이더 운영현황을 점검했다.

2020년 '세계기상의 날' 기념식 개최(3월 23일)



'세계기상의 날'을 맞이하여 본청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일부만 참석한 소규모로 진행되었으며, 전 직원은 영상을 통해 참여했다.

기상청 직원들,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3월 27일)



기상청 직원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에 성금 9,365,550원을 기탁했다.

벚꽃 개화(3월 27일)



올해 서울의 벚꽃이 3월 27일 개화했다. 이는 1922년 서울 벚꽃 관측을 시작한 이후 가장 빠르다. 또한, 작년보다 7일, 평년보다 14일 빠르게 나타났다.

📷 **임다솔**

올해도 꽃이 피겠지만, 작년만큼 맘 놓고 꽃구경을 할 수 없어서 슬프네요.
진정한 봄이 어서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 **장하숙**

이 어수선한 시절에도 산기슭에는 봄이 오고 있습니다.

📷 **공광순**

선비들이 사랑했다는 매화가 피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지러운 마음을 매화가 달래주어서 너무 좋아요!



우를, 당신의 날씨

우리는 같은 날씨 안에서
저마다 다른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날씨는 어땠나요?
당신의 이야기를 사진으로 들려주세요.

참여 방법

자신의 일상이 담긴 날씨 사진 한 장과 간단한 소개
멘트를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kmanews
@korea.kr에 4월 25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된 분께는 은누리상품권(1만 원)을 보내드립니다.
응모하실 때는 이름·주소·전화번호를 꼭 같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유의 사항

본 코너에 선정된 사진은 발표 해당호에 한해 게재되
며, 저작권은 응모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만약 타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도용하거나 저작권 규정을 어겨
응모할 경우,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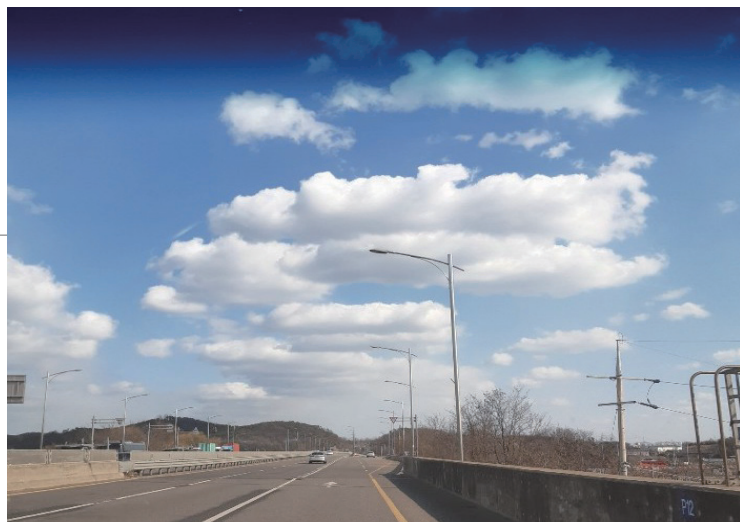
조희진
파란하늘과 노란 꽃들이 계절의 문을 두드립니다.
설레는 봄이 아쉬운 나날입니다.

이미진
고요히 떠 있는 초승달과 어우러진 노을, 아직은 쌀쌀한 초저녁,
봄의 입구에서 마냥 서성입니다.



김영
봄햇살이 이리 환한지, 개나리가 먼저 알았네.

박태규
맑은 구름처럼 코로나19도 사라져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날을 소망해봅니다.



Platform

기상청에 소식지 <하늘사랑> 외에도 다양한 채널과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기상청 온라인 채널과 이달의 인기 있는 콘텐츠를 소개합니다.

이달의 추천 콘텐츠



어떤 날씨가 버스 운행하는데 어려움을 주나요

#운전업 #대중교통 #버스기사님 #버스안에서 #인터뷰

기상청이 여러분을 찾아가합니다!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직업을 가진 분과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는 기상청 리얼생토크 'KNOCK돌이' 2편 영상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동을 책임지는 25년 경력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님을 찾아보았는데요. 운전하기 힘든 날씨부터 안전 운전비결, 날이 좋지 않을 때 대중교통의 이용을 권고하는 이유까지 알찬 이야기가 공개됩니다. 기상청 유튜브에서 만나보세요!

날씨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을 찾습니다! (마감 기한 없음)
기상청 유튜브 "KNOCK돌이" 프로그램에서는 직업 특성상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분들의 출연 신청을 받습니다. 메일(ofsp@korea.kr)로 신청해주세요.



웹진
kma.go.kr

<하늘사랑>의 모든 내용은 기상청 행정홈페이지의 간행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하늘사랑>을 PDF로 내려받고, 소셜미디어(페이스북, 트위터)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웹진보기

기상청 행정홈페이지 > 지식과 배움 > 간행물

sns

소셜미디어
(SNS)

기상청은 다양한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국민 여러분과 날씨를 매개체로 일상을 나누고, 다소 어려운 기상과학부터 기상상식, 반드시 알아야 하는 위험기상, 날씨와 연관된 트렌드 그리고 소소한 이벤트까지 다양한 콘텐츠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기상청 SNS 채널과 친구가 되어주세요!

기상청 대표 SNS 채널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kmaskylove>



유튜브
<https://youtube.com/KMA0365best>



블로그
https://blog.naver.com/kma_131



트위터
https://twitter.com/kma_skylove

산을 **타러** 가십니까?



산을 **태우러** 가십니까?

불법 흡연과 취사, 산림을 없애는 무기입니다.

산을 타러 가셨다면, 산은 태우지 마세요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